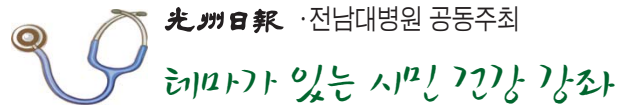


건강의료



혈변 원인과 치질 치료법

대부분 치핵·치열... 50세 이상 대장내시경 필요

최근 들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배변 습관 및 배변건강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변에 피가 묻는 혈변이 보이는 경우에는 혹시 나쁜 병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부쩍 늘어났다.

의학적으로 혈변이라 하는 경우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선홍색을 띠는 혈변(Hematochezia)으로 주로 하부위장관의 출혈로 인해 발생이 된다. 두 번째는 검은색을 띠는 흑변(Melena)으로 주로 출혈이 위장관내에서 14시간 이상 머물면서 선홍색을 띠던 출혈이 까매지는 것으로 상부 위장관이나 우측 대장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혈변과 흑변 두 가지가 모두 나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문진 뿐만 아니라 적절한 검사를 통해 원인 질환을 확실하게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소수지만 일부 환자들은 다량의 출혈로 인해 혈압 저하와 더불어 의식소실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이른 시간 내에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좋다.

◇혈변의 원인 질환=가장 많은 경우가 바로 치핵, 치열 등을 포함한 항문질환이다.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변에 피가 묻는 정도로 증상이 경해서 병원을 찾기도는 자가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직장 점막이 튀어나오거나 혈이있는 경우는 선홍색 혈변이 상당량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항문질환과 더불어 상부 대장에 다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치료를 받고 별다른 문제가 없더라도 50세 이상인 경우 대장내시경을 2년에 1회 정도 시행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로는 게실질환을 들 수 있는데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하지만 음식문화가 서구화되면서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다. 게실이라 함은 대장 주위에 조그만 낭이 발생해 그 부위가 헐거나 터지면서 농양 혹은 출혈을 일으키게 된다. 서구에서는 혈변의 가장 많은 원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적은 수에서 발생한다. 80%정도에서는 자연적으로 출혈이 멈추게 되지만 멈추지 않거나 대장내시경 혹은 혈관조영술을 통한 지혈을 해야하는 응급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이런 증상들이 재발되는 경우 정구수술을 통한 대장절제술을 시행하게 된다.

또한 최근 들어 발생률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대장종양을 들 수 있다. 용종이라 불리는 조그만 종양으로부터 대장 내 점막을 파고드는 대장암까지 크기와 깊이에 따라 혈변의 양상은 달라지게 되지만 반드시 대장내시경을 통한 용종제거술 혹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발생률이 높아지게 되므로 반드시 정기적인 대장내시경을 통한 진단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흔하지는 않지만 젊은 층에서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염증성 장 질환에 의해 혈변이 발생하는데 특히 크론씨병과 같은 면역질환에 유



전남대병원 강당에서 최근 열린 '태마가 있는 시민건강 강좌'에서 주재군 대장항문외과 교수가 혈변의 원인질환과 치질의 최신 치료법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초음파 응고법, 주변 조직 손상없이 수술 가능
경향문 절제술, 혈관 차단 항문협착 위험 적어

의해야 한다. 또한 70세 이상의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기저질환을 가진 노년층에서 나타날 수 있는 허혈성 장질환 같은 대장 점막에 모세혈관으로부터 혈액공급이 차단돼 생긴 염증으로 인해 점막이 헐게 되어 혈변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들을 진단 자체가 힘들므로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의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흑변을 유발할 수 있는 위·십이지장궤양 병변이나 맥켈씨 병, 방사선에 유발된 직장염 등 다양한 상황에서 혈변들이 나올 수 있으므로 혈변을 단순한 증상으로 보지 말고 대장내시경을 포함한 여러 검사들을 통해 질환을 파악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질의 최신치료법=치질이라 불리는 치핵의 치료법에는 예로부터 다양한 방법이 제시돼 왔다. 경화제 주사 요법, 고무링 결찰법과 같은 간단한 방법에서부터 응고법 및 절제술이 발달돼 왔다. 최근에 여러 기구의 도움을 받아 좀 더 환자에게 통증을 적게 하고 치핵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많이 소개되고 있다.

▲초음파 응고절제장치(하모닉스칼펠): 전기에너지를 초당 5만번 이상의 진동으로 변화시켜 절제와 응고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원리로 전기에너지가 인체를 통과하지 않을 뿐 아니라 확실한 지혈효

과 등의 장점이 많아 수술 중 주변 조직 손상을 피해 수술 후 근부 염증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치핵자동문합기를 이용한 호나상치핵절제술(PPH): PPH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치상선 상방에서 자동으로 봉합이 이루어지게 해 이론적으로는 통증이 거의 없다. 특히 점막탈출이 합병된 경우에는 더욱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항문근육을 절제 봉합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심한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경향문 치핵동맥 절제술(HAL): 최근 개발된 방법으로 초음파를 통해 피가 들어오는 혈관을 정확히 찾아내 차단함으로써 치질의 근원을 없애는 원리다. 절제를 하지 않으므로 항문협착의 위험도 적다. 하지만 치핵동맥 및 부혈관에 피가 계속 흐르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요구된다.

▲경화요법(지온법·ALTA 주사법): 치핵절제술 외에 치핵덩어리를 위축시키는 약물을 주입해 치료하는 방법으로 통증이 없고 정상조직손상이 없는 장점이 있으나, 외치핵의 경우는 사용할 수 없고 근치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제술 후 부차적인 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전남대 대장항문외과 주재군 교수〉
/정리=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세계로365병원, 인공관절 수술로봇 도입

광주지역 전문병원으로서 최초
수술 오차율·감염·합병증 낮춰

세계로365병원(병원장 정재훈)이 광주지역 전문병원으로서 최초로 인공관절 수술로봇 '로보닥'을 도입했다.

세계로365병원은 1995년 개원한 옛 동아병원의 정재훈 병원장이 올해 초 새로 문을 연 정형외과 관절, 척추 소화기 전문 병원이다. 관절센터, 척추센터는 물론 소화기내과, 외상센터 등을 갖춘 종합 메디컬센터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

세계로365병원은 올 9월 완료예정인 지하 2층·지상 10층·250병상 규모 증축 및 이전을 앞두고, 수술로봇 로보닥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로보닥을 이용한 로봇인공관절수술이 화산전남대병원에서만 시술했으며, 지역 내 전문병원으로서 세계로365병원이 처음이다.

로보닥 인공관절수술은 수술 전 환자의 뼈를 CT로 촬영하고, 이것을 로봇이 3차원 입체영상으로 재구성한다.

로보닥 수술은 깎아낼 뼈의 양을 최대한 보존하고, 환자 다리뼈의 정렬축을 일직선상에 놓일 수 있도록 과학적인 로봇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전통적



인 수술보다 뛰어난 수술 결과를 보여준다. 로봇 팔(arm)의 특수커터가 뼈를 정교하게 깎기 때문에 사람의 손떨림 우려가 없는 것도 큰 장점이다. 수술계획에 따라 정밀하게 수술하므로 수술의 오차율, 감염 또는 합병증 우려도 크게 낮췄다.

정재훈 병원장은 "집차 경향이 심화되는 의료환경 속에서 진정 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면서 이에 "로보닥을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저소득 계층에 '사랑의 선물' 드리고
홀몸 어르신엔 한가위 장 봐 드려요

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김필식)는 추석을 맞아 고물가에 시달리는 광주·전남지역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가위 송편나눔' 봉사활동을 펼친다. 이 행사는 LH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수원 영광원자력본부, 한국도로공사 등이 후원한다.

먼저 30일 쌀(10Kg 1포) 및 부식세트(부침가루·꽃소금·참기름·햇당면·설탕 등 7종)으로 구성된 '사랑의 선물'(1억250만원 상당)을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실직가정 등 4800세대(광주1883세대·전남2917세대)에 전달했다.

오는 9월3일 광주적십자사본관을 시작으로 광주전남 20개지역에서 적십자봉사원들이 직접

빛은 송편을 적십자사와 결연을 맺은 독거노인 및 조손가정, 새터민, 다문화가정 등 지역 내 소외계층 2000여세대를 대상으로 '한가위 송편나눔' 봉사활동을 펼친다. 이 행사는 LH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수원 영광원자력본부, 한국도로공사 등이 후원한다.

9월6일 오전 10시에는 광주양동시장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와 홀로 명절을 보내야 하는 홀몸 어르신들의 명절준비를 돕기 위해 적십자봉사원과 후원사 직원 등 100여명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추석맞이 음식 재료 등을 구매해 어르신들의 댁까지 함께 배달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국민은행, 한국수자원공사, 한전KDN, LH공사가 후원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가을철 별초·아외활동
뜨뜨가무시증 주의를

추석을 전후로 시작해 해마다 10~11월에 급격하게 발생하는 가을철 발열성 질환인 뜨뜨가무시증이 유행할 것으로 전망돼 주의가 필요하다.

뜨뜨가무시증의 매개충은 털진드기과 진드기 유충이다. 감염된 진드기 유충에 물릴 때 이 증상이 발생하며 잠복기는 6~18일이고 사람 개리는 전염(감염)되지 않아 격려나 소독은 필요없다.

별초, 성묘, 단풍놀이, 도토리나 밤줍기, 고구마나 콩 등 밭작물 수확, 등산 등 야외활동을 하면서 풀밭 위에 옷을 벗어 놓거나 누울 때 걸리기 쉽다. 감염되면 열이 나고 심한 두통, 식은땀, 결막 충혈 등이 나타난다.

전문가들은 뜨뜨가무시증 감염 예방을 위해 ▲풀밭 위에 옷을 벗어 놓거나 눕지 말 것 ▲휴식이나 세침을 댈 때 돛자리를 사용할 것 ▲비온 뒤 개울 주변 풀밭에 가지 말 것 ▲작업 중 풀숲에 앉아서 용변을 보지 말 것 ▲야외 활동을 할 때 긴 소매 옷과 양말을 착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깨끗하고 건강한 캐나다 청정자연에서 탄생한 - Natural Factors (내추럴팩터스) 드디어 한국에서도 공식 판매 합니다!

청정자연 캐나다에서 태어난 50년 역사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50여 개국으로 수출하여 글로벌 시장에도 우수한 품질확신!

2010년 12월 내추럴팩터스를 국제약품이 공식 판매 합니다!



청정자연에서 건강을 찾아 연구하는 캐나다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내추럴 팩터스

50년 내추럴팩터스 역사를 담았습니다!



캐나다 대표 브랜드 내추럴팩터스는 수십만 평의 자체 허브농장에서 재배한 자연원료를 최첨단 자체연구소에서 우수한 연구기술진이 탄생시킨 고품질 명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원료에서부터 완제품까지 철저한 품질관리 시스템은 50여년 동안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 철저하고 꼼꼼한 선택!-내추럴팩터스입니다!

Natural Factors 한국총판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공업주식회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48번지 http://www.kukjepharm.co.kr

제품문의 : (031) 781.9081 (고객지원팀)